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 출범... “성공 개최” 첫발

섬 주민 함께하는 국제행사 표명
내년 1월 공무원 파견 업무 실행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8일 여수시문화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성공개최를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1차 2본부 1실 8부 형태의 사무처로 구성돼 행사장 조성·전시 연출·행사 운영·홍보·참가국 및 관람객 유치 등 국제행사의 세부 실행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박수관 회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임원진, 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출범사와 함께 섬 박람회의 대외를 총괄하고 위상을 제고할 민간 조직위원장 임명식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와 정기명 시장과 함께 공동 조직위원장은 여수 섬 출향인사를 대표하고 지역 사회에 꾸준한 봉사료 귀감이 되는 ㈜YC-TEC 박수관 회장이 임명됐다.

세 명은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 박람



재단법인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지난 8일 여수시문화홀에서 출범식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무대에 올라 파이팅을 하고 있다. 출범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고기동 행정안전부차관, 박수관 공동위원장 등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 임원진, 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 제공**

회 성공 개최를 위해 헌신할 예정이다.

섬 박람회 성공 개최 세리머니와 비전선포 퍼포먼스는 권역별 여수의 섬 주민이 참여해 섬과 섬을 잇는 의식을 통해 여수 섬 주민과 함께하는 국제행사라는 점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여수시는 중앙정부와 전남도, 민관이 합심해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공식 출범된 만큼 연내까지 기구 직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2024년 1월부터 공무원 파견을 통한 국제행사 세부 실행에 들어

갈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출범사를 통해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 성공을 위해 조직위가 출범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섬박람회는 여수엑스포에 이어 여수 저력을 보여주고 미래 비전을 다지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도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의 아름다운 섬을 비롯해 우리나라 섬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

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남은 2년 9개월간 세부 실행계획을 탄탄히 준비해 여수가 모두가 꿈꾸는 미래 지속 가능한 섬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주제로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61일간 돌산 진모지구 행사장과 여수의 36개 섬에서 열린다. **여수=이경기 기자**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 개소
스마트 여수산단 기반 강화
제품개발비 절감·시간 단축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지난 6일 여수 미래혁신지구내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를 개소하고 첨단기술 스마트 여수산단 기반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공정혁신 시물레이션센터’는 지난 2021년 산자부 스마트그린산단 촉진 공모사업에 선정·건립, 국비 178억원, 시비 36억여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59억원으로 부지 1750㎡, 건축 연면적 1370㎡에 지상4층 규모로 신축됐다.

고가의 시물레이션 프로그램 및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실증화 장비 등의 인프라를 구축해 산단 기업에 디지털 시물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개발 비용 절감 및 시간 단축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여수산단 기업들이 제품 개발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여수산단의 디지털 기반 기술 혁신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물레이션 전산 교육실, 디지털 스튜디오 등 첨단 교육시설과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해석 전문 고급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돌산읍 김장나눔 행사

여수시 돌산읍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김장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10일 여수시 돌산읍에 따르면 돌산읍 사무소 옛 동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돌산읍 관내 13개 유관기관 및 단체 회원 70여 명이 참여했으며 저소득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어려운 이웃 132세대에 전달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는 떡국떡 5kg 44개 박스를 후원 어려운 가정에 전달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실 여수시, 내년부터 운영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출하 농민을 위한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실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1월 농산물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이후, 지역 내 농산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안전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따른 것.

‘농산물 잔류농약분석실’은 여수시 주삼동의 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내 위치, LC-MS/MS 등 주요 잔류농약 분석 장비 20여종을 보유하고 있다.

농업인이 출하 전 생산단계에서 농산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잔류농약(463종) 검출과 적합 유무를 판정해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유통 중 적발되는 농업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잔류농약 분석은 여수시에 주소지와 농지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분석 수수료는 5만8000원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 돌산읍이 돌산읍사무소 옛 동헌에서 13개 유관기관과 단체 회원들과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펼쳤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문화예술 견인 ‘여수문화재단’ 설립 가시화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2본부·5팀... 25년 3월 설립

여수시 문화예술을 견인할 ‘여수문화재단’ 명칭이 확정되는 등 재단설립이 가시화하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문화예술위원회와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시 공무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문화예술재단 설립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서는 재단의 예산, 인력, 조직 구성, 담당업무 등 핵심 사항과 향후 5년

동안의 발전 전략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재단의 공식 명칭은 ‘여수문화재단’으로 결정됐다. 재단 조직은 △문화경영본부 △예술축제본부의 2본부와 △경영기획팀 △문화기획팀 △예술진흥팀 △축제지원팀 △문화예술교육지원팀 5팀과 직원 29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된다.

‘여수문화재단’은 여수형 창작예술 지원, 기획공연 개발, 문화예술 교육 시스템 구축, 지역특화콘텐츠 발굴, 지역문화예술정책 연구개발, 시민회관 공연 운영 등의 문화예술 정책을 기획·시행하는 역

할 수행하게 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문화도시 여수’ 도약에 여수문화재단의 중추적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민선 8기 핵심 공약사항으로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간담회 추진 등을 통해 재단 설립의 공감대를 형성해 시민과 함께 재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내년에 재단 설립 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설립준비팀 구성, 조례안 제정, 재단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직원 채용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재단을 설립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식품위생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 행정 신뢰 질적향상 기대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식품위생민원 등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 연중 운영으로 발빠른 민원처리로 호응을 얻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는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사전심사청구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후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청구 후 민원인이 방문 없이 인·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의 경우 인·허가 후 시설·설비 갖춰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구역 등 환경규제 등으로 허가가 인정되지 않을 시 영업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된다.

시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해 식품 및 공중위생 영업신고 전 식품위생과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했다.

식품 및 공중위생 인허가 관련 민원인은 식품위생과에 사전심사를 청구하면 식품위생과는 건축법, 하수도법 등 관련 부서와 온라인 실무협의를 통해 3일 이내 가능 여부 또는 보완사항을 민원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준다.

여수=이경기 기자